

kotra NEWS

베트남
비즈니스

1월

발행일 : 2023년 12월 29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팀코리아협의체 동정> 2023 하반기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12
✓ <기업탐방>	크리에이토리 13
✓ <법률> 베트남 기업법상 자본금 납입	전현우 변호사 15
✓ <중재> 사후중재란 무엇일까	대한상사중재원 17
✓ <통관> 베트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동향	박민설 관세사 18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타이응우옌성>	20
✓ <이달의 보고서> 2023 베트남 비즈니스팁	27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28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33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84 24-3946-0511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 ©KOTRA >



2023년 베트남 산업개관

- 2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37~38%로 높아
- 최근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산업 생산 완만한 회복세

산업별 GDP 비중

베트남 통계총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베트남 GDP에서 산업 부문별 비중은 1차 산업이 11.9%, 2차 산업이 38.3%, 3차 산업이 41.3%이며, 순생산물세가 8.5%이다. 베트남은 대체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2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3차 산업의 비중이 아직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1차 산업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산업이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받침대' 역할(GDP 비중 14%에서 14.9% 상승)을 했다. 2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검토기간 동안 34.3%에서 37.2%로 2.9%p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의 제조 산업은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여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GSO에 따르면, '23년 1~9월 2차 산업의 성장률은 2.4%로 같은 기간 '22년의 2차 산업 성장률이 9.2%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 베트남의 상품 수출 감소가 주요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3차 산업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3차 산업은 관광 산업으로서 최근 베트남 3차 산업의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3년 3분기 누계 기준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890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 수치의 약 70.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이다.

산업생산지수(IIP)

베트남의 산업생산지수는 '21년과 '22년 각각 전년 대비 4.8%, 7.8% 성장했으나, '23년에는 1~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5%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베트남 당국은 신규 주문 감소, 원자재 공급 부족,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 투입 비용 상승 등을 생산 회복세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에도 베트남의 산업 생산은 대외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주요 무역 파트너의 더딘 경제 회복,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동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정성,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긴축 정책,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하방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024년 베트남의 산업 생산을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지난 10월 베트남 정부는 2024년 경제성장을 목표를 6.0~6.5%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베트남의 산업 생산 회복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산업 발전 방향성 및 대전략

베트남은 주로 중앙 정부 또는 국회에서 국가 전반 혹은 특정 산업별 목표를 명문화한 뒤,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산업을 지원하고, 이러한 활동을 평가 및 환류하는 형식을 반복하며 국가의 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 2022년 11월 17일 응우옌 푸 쭉(Nguyen Phu Trong) 서기장이 "2030년까지의 국가 산업화 및 현대화 지속 추진, 2045년 비전"에 관한 결의안 제29-NQ/TW호를 서명 및 공포함으로써 2030년까지의 산업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해당 문서에 언급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2030년까지의 경제 발전 목표>

목표	현황
연평균 GDP 성장률 약 7%	(‘24년 목표) 6.0~6.5% ('23년 목표) 6.5% → 5.0% * '23년 10월 하향 조정 (현황) 4.2% * '23년 1~9월 기준
1인당 GDP 7500달러	(‘24년 목표) 4,700~4,730달러 ('23년 목표) 4,400달러 (현황) 4,110달러('22)
1인당 GNI 7000달러 이상	총 GNI: 3,731.1억 달러('22)
경제 성장에 대한 총요소생산성(TFP)의 기여도 50% 이상	-
글로벌 혁신 지수(GII) 세계 40위	48위('22) → 46위('23)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아세안 내 3대 선도 국가 그룹으로 도약	-
2차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40% 이상	38.26%('22) → 37.16%('23. 1~9월)
제조·가공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30%	24.76%('22) → 23.83%('23. 1~9월)
제조·가공업 내 첨단산업 제품의 가치 비중 45 % 이상	-
3차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50% 이상, 그 중 관광업은 GDP의 14~15%	(3차 산업) 41.33%('22) → 42.72%('23. 1~9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 다수 육성	-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를 다수 구축·발전, 다수의 산업 및 농업 가치 사슬(value chain)을 확보	-
디지털 경제 비중 GDP의 30%	11.91%('21) → 14.26%('22)

산업군별 주요 정책

(1) 1차 산업

2022년 1월 28일, 베트남은 "2021~2030년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및 농촌 개발 전략, 2050년 비전"에 대한 결정 제150/QD-TTg호(Decision No. 150/QD-TTg)를 총리가 승인하며 1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1차 산업은 3가지 상품군(국가 주력 상품, 성(province) 차원의 주력 상품, 지역 특산품)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

△ 농업 발전 방향: ①비교우위가 있고 수요가 많은 작물(공예 작물(밀, 옥수수, 감자 등), 열대 과일, 고품질 쌀 등)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②가금류, 계란, 유제품 관련 잠재력이 있고 수요가 많은 상품을 개발하며 ③돼지 및 소 등 축산업을 유지

△ 어업 발전 방향: 수산업을 전략적 생산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수출을 확대

참고: KOTRA 하노이무역관 해외시장뉴스 "농업농촌발전전략을 통해 살펴본 베트남 농업의 미래" [바로가기]

(2) 2차 산업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탄소중립, 순환경 등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천연자원 부문 개발을 위한 ‘2050년 목표, 2021~2030년 광물 탐사, 개발, 가공 및 사용계획’을 총리령(제866/QD-TTg호)으로 승인했다. 제866/QD-TTg호(Decision No. 866/QD-TTg)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환경정책에 따르기 위한 핵심 광물 관리 및 사용 목표가 자세히 규정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주요 광물에 대한 지역별 광산 위치 및 매장량, 프로젝트 신규 개발 유무 등 세부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동 결정문에서 제시된 베트남 광물 개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참고: KOTRA 하노이무역관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정부의 최신 광물 개발 목표 및 계획” [바로가기]

<광물 자원 개발 방향성>

국가 계획과의 일치성 강조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가공 및 사용은 국가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자연경관, 역사문화 유적지 등에 대한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함
탐사 결과에 따른 채굴, 가공, 사용	광물은 재생 불가능한 유한 자원이므로, 매장량, 품질, 채굴 및 가공 능력, 수요 등에 대한 탐사 및 전반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광물이 채굴, 가공 및 사용되어야 함
시장경제와 자국 우선주의의 공존	엄격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광물을 관리하고, 역량 있는 경제 주체들이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며 광물의 탐사, 추출, 가공 및 사용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며, 수출입 균형을 맞추고 국내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도록 함
국제 약속 준수, 친환경 개발	국제 협약 틀 내에서 녹색 경제, 순환 경제 및 저탄소 경제로의 국가 경제 전환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광물 탐사, 추출, 가공 및 개발
주요 광물 개발권의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	매장량이 많고 전략적 의미가 큰 광물(보크사이트, 타이타늄, 희토류, 크롬, 니켈 및 금)에 대해서는 첨단기술 및 현대 장비를 사용하고 환경에 대해 지속 가능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기업에 우선 개발권 승인
클러스터화	매장량이 적고 흩어져 있는 소규모 광산 개발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이를 한데 모아 대규모 광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개발 및 투자

베트남은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활발한 정책적 활동을 하고 있다. 결정문 제1658/QD-TTg호(‘2021-2030년 녹색 성장에 대한 국가 전략, 비전 2050,’ Decision No. 1658/QD-TTg)를 통해 GDP 기준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Greenhouse Gas Emission Intensity)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GDP 기준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14년 대비 15%, 2050년까지 ’14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베트남은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의지를 담은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발전원 다양화 및 전력 효율화 등 에너지 전환 계획을 담은 ‘제 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 8)’ 등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고: KOTRA 호치민무역관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 훑어보기” [바로가기]

참고: KOTRA 하노이무역관 해외시장뉴스 “JETP, 베트남 탄소중립 실현의 첫 걸음” [바로가기]

(3) 3차 산업

2020년 총리령(결정 제283/QĐ-TTg호)으로 승인된 "2025년까지의 서비스 산업 개혁 계획"을 통해 제시된 목표를 통해 베트남의 3차 산업 육성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주요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5년까지의 베트남 서비스 산업 발전 목표>

구분	내용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2025년 동안 약 7~7.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5년까지 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43~44%로 확대 2025년까지 자격증을 보유한 숙련된 서비스 산업 근로자 비율 약 30~35%
금융·은행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까지 결제수단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 8% 미만
정보 및 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IT제품 및 솔루션, 전자제품 및 중요한 통신 장비를 능동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확보
유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2025년 동안 소매 판매 및 서비스 수익의 연평균 성장률 9%
교육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까지 연평균 약 460만 명에게 직업 훈련 제공 훈련 후 최소 85% 이상의 학습자의 구직 및 생산성·소득 향상 달성
운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까지 물류 서비스 산업의 GDP 기여도는 8~10% 연평균 성장률 15~20%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세계 50위 이내 진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까지 과학 및 기술 활동의 총요소생산성(TFP)을 통해 경제 성장에 약 40%를 기여 과학 기술 시장 거래 가치 연평균 20% 성장
관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까지 약 3,200만 명의 해외 관광객과 1억 3000만 명 이상의 국내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이 GDP의 10% 이상 기여 관광산업 총 수입 약 450억 달러, 관광을 통한 수출 가치 270억 달러 관련 일자리 600만 개 창출
보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까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10명 달성 건강보험 가입률 95% 보건 관련 공공 지출 비율 GDP의 4%



2023년 베트남 물류산업 정보

- 최근 교역 · 투자 감소로 인해 부진
-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비용 절감이 관건

주요기업

베트남에는 3만 개 이상의 물류 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5,000개 기업이 3PL 물류(제3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수 기준으로는 3PL물류 기업의 89%가 국내 기업, 10%는 합작투자 기업, 1%는 지분 10 0% 외투법인이 구성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대다수이지만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약30%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외국 기업은 다국적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DHL, Kuehne + Nagel, DSV, DB Schenker 등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항구 및 공항 현황

현재 296개의 항구(seaport)와 22개의 공항을 갖추고 있다. 항만 국제 운항 노선은 총 34개(미국 20개, 아시아 11개, 유럽 3개)로, 아세안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물류 산업 발전, 관광산업의 성장, 다양한 저비용 항공사가 도입되며 공항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22개 공항을 운영 중이다. 이 중 10개 공항은 국제공항, 12개 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연간 1억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현황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분류한 19개 투자 분야 중 투자신고액 누적 기준 일곱 번째로 많이 투자한 분야이다. 최근 프랑스의 FM Logistic은 빈즈엉(Binh Duong)성에 총 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만㎡ 이상의 면적을 가진 물류센터를 개설했다. 싱가포르의 SPX도 박닌(Bac Ninh)성 산업단지에 최첨단 자동화 분류센터를 설립했다. 중국 기업들도 시장을 확대하고 배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베트남 물류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2년 Best Express(중국)는 박닌과 호치민에 상품 분류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2,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Cainiao Network는 롱안(Long An)성에 11만㎡ 규모의 물류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시사점 및 전망

베트남은 15개 FTA에 참여하는 개방적인 무역 환경을 갖추고 있어 경제 영토가 넓고, 긴 해안선을 보유해 여러 항구를 보유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를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LPI순위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등 부진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베트남의 교역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물류 산업은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인프라 개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류 최적화 및 효율화 등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면 베트남 물류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베트남 관광산업 정보

- 비자완화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대표 산업으로 육성
-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관광 회복세

주요이슈: 비자 정책 완화에 힘입은 엔데믹(Endemic) 시대의 관광 회복

(1) 앞섰던 리오프닝(Reopening)에도 뒤쳐진 관광 실적

베트남은 2022년 1월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고, 같은 해 5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전 폐지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이후 2022년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대비 2,228% 급증한 366만 명으로 관광 회복의 시작을 알렸다. 다만, 이는 2019년 대비 20% 수준에 불과하여 베트남 정부의 기대에 못미치는 실적이었다. 이에 반해 관광산업 관련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베트남을 제외한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2022년 당시 빠른 속도로 관광산업 실적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2) 본격적인 회복을 위한 비자 정책 완화

이에 베트남에서는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이를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관광산업의 실적 회복이 더딘 이유로 엄격한 입국 요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 8월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및 전자비자로 출입국할 수 있는 국경 관문 목록”에 관한 결의안(32/NQ-CP)에 대한 개정 결의안(127/NQ-CP)을 발표했다. 전자비자 대상국 확대, 주요국 대상 무비자 기간 연장 등 비자 정책을 완화함으로써 인바운드 관광객(Inbound tourists) 유입 확대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KOTRA 호치민무역관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비자정책 완화, 관광산업의 현황과 전망” [바로가기]

시장규모

베트남의 관광산업 매출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베트남의 관광산업 연간 매출액은 지난 2019년 726조 동(약 310억 달러)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 180조 동(약 77억 달러)까지 감소했으나, 2022년 495조 동(약 210억 달러)까지 회복했으며, 2023년에는 1~10월 누계 기준 총 582조 6000억 동(약 24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사점 및 전망

아직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 국가임에도 베트남은 완화된 비자 정책 추진,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등 ‘굴뚝 없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올 11월 한 달 동안 베트남에는 123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며 리오프닝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의 좋은 흐름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열악한 인프라 개선,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라면 시장동향

- 베트남 소비 인구의 변화,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요 증가
- 치열하게 경쟁중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유의점은?

베트남인들이 즐겨 찾는 라면 종류는?

베트남의 수돗물에는 석회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국물을 섭취하지 않고 먹는 볶음 라면류가 인기가 있다. 두 번째로 베트남인들은 끓이지 않고 라면을 섭취하는 간편한 방식을 선호한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제품은 베트남인들의 취향에 맞춰 끓이지 않고 뜨거운 물만 부어도 금방 취식 할 수 있도록 얇은 면의 제품들이 많다. 세 번째로, 베트남의 라면 스프에는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향신료(고수 등)가 들어 있기도 하고 시큼하거나 해산물 국물 맛이 나는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

베트남 소비 인구의 변화,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요 증가

Z세대라고 불리는 10-20대 소비자들은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산 라면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한국의 라면 제품 등을 리뷰하거나 ‘챌린지’라 불리는 유행 영상을 찍으며, 공유하고 있다. 한국 라면 제품은 베트남 시장에 진입한 상태였지만, 이전까지는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외국 라면 제품 중 하나라는 인식 뿐 큰 성장은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본격적인 성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라면 제품은 베트남의 10-20대 소비자들을 통해 자극적인 맛을 위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극적인 맛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한국 라면 제품이 베트남에 소개되고 있다.

경쟁동향 및 주요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베트남 라면 제품 시장은 상위 3개 기업이 약 4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본 브랜드와 자국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브랜드는 베트남 시장이 성장하는 초기부터 현지 기업과 협력하거나 공장을 건설하는 등 장기적인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 반면에 자국 브랜드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애국심과 자국 제품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점유율은 아직 높지 않지만 꾸준한 인기를 바탕으로 차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및 전망

한국 라면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 라면의 판매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현지생산 라면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베트남의 라면 시장에서 한국 라면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다소 적은 편이다. 한국 라면 제품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케팅 방법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 코로나 이후 높아진 건강에 대한 인식 반영한 신제품 ▲ 변화하는 소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타깃 집중 마케팅 ▲ 유명인을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

▶ 베트남, 1~11월 신규기업 설립수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

베트남 통계총국에 따르면 11월 베트남에 신규 설립된 기업은 14,270개에 달했음. 이에 따라 2023년 11월까지 신규 설립 및 시장 재진입 기업수는 약 201,530개로 전년동기대비 약 3.5% 증가함. 이는 2018~2022년 평균 신규 설립 및 시장 재진입 기업 수인 164,500개 보다 약 1.2배 증가한 수치임. 이 중 농림어업 분야 신규 설립 기업은 1,621개로 전년동기대비 11.5% 하락했으며, 산업 및 건설 부문 기업수는 34,700개로 2.6% 증가했음. 또한 서비스 부문은 109,700개로 7.5% 증가했음.

[VTV news 12.3]

▶ 베트남, 2024년 9월까지 2G 네트워크 단계적 폐지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에 따르면 베트남은 2G 모바일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2024년 9월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임. 해당 결정은 국가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임. 베트남 정보통신부 부부장은 2G 네트워크 폐지는 4차 산업 혁명을 향한 베트남의 더 넓은 목표와 일치한다고 전했으며 이로 인해 디지털 환경 내에서 최신 서비스 및 거래에 대한 고속 접근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함.

[The Saigon Times 12.6]

▶ 엔비디아(NVIDIA), “베트남, 제2거점으로 육성”

NVIDIA(엔비디아)는 지난 11일 하노이시 국가혁신센터(NIC)에서 열린 기획투자부 주최 '반도체산업 및 AI 개발 회의'에서 베트남의 인력 역량 향상과 인프라 개선 투자로 베트남의 발전을 뒷받침 할 것으로 밝힘. 또한 엔비디아(NVIDIA)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풀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으나 베트남은 100만 AI 엔지니어를 양성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잠재력이 현실화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함. 이에 엔비디아는 베트남을 제 2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 법인과 함께 칩설계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음.

[VN express 12.11]

▶ 베트남-중국 정상회담, '미래 공유 공동체' 구축 합의 공동성명 발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월 12~13일 베트남에 방문함. 철도 연결, 5G, 영유권 분쟁 지역 합동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베트남-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안보·경제 협력 관련 36개 협정을 체결했음.

[VN express 12.12]

▶ 세계은행(WB), 베트남 경기부양정책 2024년까지 지속 권유

최근 세계은행(WB)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이 계획된 투자와 수요 촉진을 위해서는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함. 해당 제안은 베트남의 구매자관리지수(PMI) 하락에 대한 우려 등 경제 지표가 아직 완전한 회복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을 배경으로 함. 베트남의 주요 성장 동력인 무역,

투자 부분이 2023년 하반기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 수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Saigon Times 12.19]

▶ 북부 하이즈엉(HAI DUONG)시, 중앙직할시 승격 예정

베트남 북부의 하이즈엉(Hai Duong)시는 12월 19일 총리 승인에 따라 중앙 직할시로 승격될 것으로 예정됨. 북부 하이즈엉(Hai Duong)시는 베트남 북부의 대표적인 투자지역으로 203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을 9.5%를 달성하고 1인당 GRDP를 약 1억 8,000만 đồng으로 끌어올릴 계획에 있음. 현재 베트남에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꺼터, 하이퐁의 5개의 중앙직할시가 있으며, 추가로 박닌, 투아티엔-후에, 칸화, 바리아-붕파우, 하이즈엉 등 5 개의 성, 시가 중앙직할시로 승격될 예정임.

[Saigon Times 12.20]

▶ 베트남, 화장품 온라인 판매사업 규제 강화 추진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화장품 온라인 판매업체의 제품 원산지 및 품질 공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규정 신설을 주 무부처인 산업무역부에 요청.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 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위조 화장품과 밀수품, 원산지 불명 제품 판매자가 크게 늘어 나고 있음. 또한, 화장품의 특성을 고려해 원료 성분을 비롯한 안전기준을 강화해왔으나 정작 화장품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함. 이에 화장품 온라인 판매를 관리할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시 제품에 대한 신뢰도 상승,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전함.

[Vnexpress 12.21]

▶ 베트남, 녹색산업단지 개발 추진

베트남의 녹색산업단지 개발은 베트남 2050년 비전, 2030년 지속 가능한 개발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의 중요한 과제임. 베트남은 기존 산업단지를 전환하는 것 외에도 설계 및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공정 및 기술, 자원 효율적 사용, 폐기 물 감소 및 재사용을 갖춘 투자 프로젝트 유치를 충족하는 새로운 생태 산업단지를 건설 할 계획임. 이에 베트남은 기존 제도, 정책 및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 단지 및 경제 구역 개발을 위한 목표를 조정 해야 할 필요가 있음.

[Vietnam Plus 12.24]

▶ 베트남, 국가통계 DB 구축사업 승인

베트남은 최근 국가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승인함.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은 2030년까지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아세안(ASEAN) 지역에서 선진화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4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현대적인 통계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됨.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베트남의 모든 부처, 부문, 성, 시는 데이터 및 통계정보 표준에 따라 통계 데이터 베이스를 위한 정보기술 인프라를 완성 해야함

.[Vietnam News 12.25]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Savan 1 Wind Power Plant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e.kim@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기관명 : SD Vietnam Investment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현장위치 : Phin Dist., Savannakhet Province, Laos규모 : 약 500~600 백만 달러 (잠정)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자본(20%) 및 커머셜론(80%)프로젝트 단계 : Preparing for FS report입찰방식 : 추후결정세부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프로젝트 기간 : 2023~2025사업지 면적 : ~9,985.09ha설치용량 : 495MW상업운전시기 : 2025년



2023 하반기 경영지원 세미나 성료

지난 12월 5일, 하노이 롯데호텔 6층에서 2023년 하반기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가 개최됐다. KOTRA 하노이 무역관이 주최하고 대사관과 코참이 지원한 본 행사에서 코트라의 이희상 동남아 대양주 본부장(하노이무역관장)은 2023년은 우리 기업들에게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시기였다며, '수요 감소에 따라 수출도 9% 감소했고 모든 활동이 위축됐지만 내년 베트남 경제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개회사를 전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좋은 인사이트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첫 세션에서 전략물자관리원의 정인교 원장이 미국의 포괄적 수출통제제도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소개한 데 이어 채수홍 센터장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사례로 들었다. 우리은행 베트남의 오태준 수석은 올해의 베트남 경제 동향과 내년의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홍주 변호사가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투자 동향과 개정된 법 규정에 대해, 서우회계법인의 조성룡 회계사는 베트남의 변경된 조세 제도에 대해, 그리고 코트라의 박민설 관세사는 내년의 신규 관세 제도와 통관 규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으며, 코트라의 김경돈 팀장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은 지난 2008년부터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을 위한 경영지원 세미나를 매년 1~2회 개최하고 있다.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 크리에이토리

크리에이토리 양정호 이사

크리에이토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설립된 크리에이토리는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 생소했던 베트남 시장에서 자체 육성을 시도한 첫 회사로 한국 연예계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디지털 컨텐츠 제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통해 사업을 전개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입니다. 사업 초기 다양한 변수를 가진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성공 확률을 보수적으로 낮게 예측하였지만, 당시 베트남 컨텐츠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략이 잘 적중하였고 컨텐츠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빠른 시간내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크리에이터 사례로는 Misthy(베트남 여성 1등 크리에이터), Pewpew(베트남 남성 1등 게임 크리에이터), Woossi(한인 푸드 1등 크리에이터), Banana(베트남 1등 마인크래프트 크리에이터)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13개의 유튜브 골드버튼(100만 구독자 달성) 및 1억명의 누적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주요 컨텐츠 플랫폼인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과 파트너쉽을 맺어 크리에이터 컨텐츠 제작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플랫폼, 크리에이터 그리고 기업고객 삼각 구조 중간에서 서로가 원활하게 협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부탁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며 야외촬영 제한,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컨텐츠 제작에 많은 제약이 생기며, 미래 컨텐츠 제작 환경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I를 기반한 영상 제작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점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설비, 인력 및 기술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외부 제작 로케이션에 구애 받지 않고 어떤 환경도 촬영할 수 있는 버츄얼 프로덕션, 3D 영상 제작 기술을 보유한 인하우스 프로덕션 그리고 가상 인플루언서 제작 및 육성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보유하여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제작 패러다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MCN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MCN 산업은 현재 베트남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컨텐츠 생태계에 맞춰 진화 중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로만 여겨졌던 솟폼 영상 컨텐츠가 이제는 남녀노소 즐기는 하나의 컨텐츠 문화로 자리 잡은 것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고 그에 맞는 제작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은 솟폼 컨텐츠 전환이 굉장히 빠른 국가중 하나입니다. 그에 맞춰 크리에이터들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MCN 또한 새로운 제작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연결 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하고 계신 신사업이 있으신가요?

베트남 광고시장은 한국과 다르게 전통 광고 매체가 다양하지 않고, 디지털, 특히 SNS에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 마케팅을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SNS의 미디어 역할을 하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크리에이토리는 다년간 자체 SNS 플랫폼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자체 기획 제작한 컨텐츠를 공급하고, 수백개의 채널을 육성한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단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아닌, 전략기획, 크리에이티브, 브랜딩, 바이럴 컨텐츠, User Acquisition & retention, 커뮤니티 구축까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OTRA와 OCOP CSR 사업을 진행하셨던데,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하고 계신 활동이나 사례가 있으신가요?

크리에이토리가 설립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소속 크리에이터들에게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려면 수많은 시청자 팬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기에, 그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항상 느끼고, 좋은 컨텐츠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변함없이 전달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익 중 일부를 항상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환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회사도 함께 부담하고 참여해왔습니다. 직접적인 기부금 모금부터 고아원 봉사,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홍보 및 참가 등 매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크리에이터 및 임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MCN 산업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디지털 컨텐츠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 기술, 시청자의 변화를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한국기업간의 경쟁을 통한 양분보다는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시장을 키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장 진출의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연락주시면 제 경험을 충분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법률상 정관자본금 납입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정관자본금

베트남 기업법 제47조는 법인설립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자본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자본금은 법인설립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법률상 약정된 현금출자금액 및 현물출자 비용을 모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해당 정관자본금을 모두 납입하였는지 여부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자본금 완납 여부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정관자본금 납입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관자본금 납입 방법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 설립에 앞서 투자법에 따라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투자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투자프로젝트 신청시에 정관자본금 납입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법상 현물출자 납입 방법을 금지하고 있는 아님하기에 현물출자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현물출자를 변태설립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법과 달리 베트남 기업법은 현물출자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먼저, 기계설비, 토지사용권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 공백이 많아 실무적으로 현물출자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계설비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자체보다는 출자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계설비 감가상각 및 이후 노후화된 기계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자본금으로 설정된 설비이므로 자본금 감자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법상 자본금 감자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아니하나,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법상 투자프로젝트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자의 경우 투자프로젝트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인허가 관청의 승인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시는 경우 현금으로 우선 출자하시고 해당 설비를 구매하시어 자산으로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정관자본금 납입 기한

정관자본금은 기업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의 경우 일시에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며, 여러 차례 분할하여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한 출자자의 경우 출자 지분

만큼만 그 권리가 인정되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출자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한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권리를 박탈하며, 납입하지 못한 지분에 대한 감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납주주가 납입기한을 도과하여 납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등록증상 납입기간연장 승인을 진행하여 납입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 감자절차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다시 기업법과 투자법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상 감자절차와 별개로 투자프로젝트상 출자를 진행하지 못한 투자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투자프로젝트에 관한 승인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바, 이는 전체 프로젝트 이행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미납주주 뿐만 아니라 회사 및 납입을 완료한 주주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여러가지 대안으로, 감자절차 대신 납입을 완료하지 못한 주주 대신 다른 투자자가 해당 지분만큼 대납하여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또는 제3투자자 등에게 해당 투자권리를 양도함으로써 프로젝트 이행 안정성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외국인 투자자로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기업법 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법 규정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불필요한 법률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후중재란 무엇일까

대한상사중재원 유하영 소장

안녕하세요. 대한상사중재원 하노이사무소장 유하영입니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재합의 방식

중재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합니다. 중재법 제8조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보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중재합의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두는 사전 중재합의방식과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사후 중재합의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주된 계약체결시에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중재합의의 내용

중재 신청시에는 중재신청서 뿐만 아니라 중재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합의서 대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사후 중재합의로 중재합의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http://www.kcab.or.kr/>)에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 3.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재합의를 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중재절차 진행 시 이 같은 기본적 사항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베트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 동향

FTA 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베트남 환경보호법은 1993년 처음 제정되어 여러 번 개정을 거쳤으며, 2020년도 개정 환경보호법이 2022년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습니다. 개정 환경보호법은 분리수거 의무의 강조, 환경 허가 및 환경 영향평가의 도입 등에 의의가 있으며 개정 환경보호법의 이행을 위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08/2022/ND-CP가 2022년도 1월 10일자로 발효하였습니다.

환경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베트남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08/2022/ND-CP에서는 일부 상품 및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의 포장재, 충전지, 윤활유, 타이어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시행령 상 규정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 포장재 : 식품, 화장품, 의약품, 비료, 세제, 시멘트용 포장재
- 충전지 및 배터리
- 윤활유
- 타이어, 이너튜브
- 전기, 전자제품
- 교통수단

이러한 상품군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물품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재활용을 이행하거나 베트남 환경보호기금(VEPF)에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함으로써 재활용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물품별 재활용률은 시행령 부록에 제품별로 정해지며, 직접 재활용은 승인된 제조자 및 수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인증된 제3자의 고용 혹은 재활용 서비스 제공자 이용을 통해 이행이 필요합니다.

재활용 부과금 납부로써 이행을 대신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 납부 금액 = 강제 재활용률(%) × 제조, 유통, 수입된 상품 및 포장재의 무게(kg) × 재생비용(Fs)

강제 재활용률의 경우는 현행 환경보호법 시행령 부록을 통해 제품별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생비용(Fs)의 경우 별도로 총리령을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재생비용은 재활용을 위한 물품의 분류 및 수집 비용, 운송 비용, 재활용 활동 비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해지는 비용을 의미하며, 2023년도 4월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제품

군별 재생비용에 대한 결정 초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재활용 부과금 납부 시 수입자 및 제조자는 매년 3월 31일 전, 직전 년도 제조 및 유통, 수입 이력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단위로 부과금에 대한 신고 이행 및 4월 20일 전 일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일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4월 20일 및 10월 20일에 걸쳐 2회 분납이 가능하나, 1차 납부 시 전체 납부 금액의 최소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한 무게와 실제 무게 간 차이 발생 시, 다음 해 추가 납부 혹은 공제를 통한 정산이 이뤄집니다.

최근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782/TB-BTNBT 통보문을 통해 제조자 및 수입자가 실제 재활용률에 따라 재활용을 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경우 재활용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조직의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재활용 부과금 납부로써 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적용이 필요한 재생비용에 대한 총리령 초안 또한 유관 기관, 기업의 의견 취합 절차 중에 있어, 2024년도부터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품목을 수입,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동향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환경보호법, 환경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시행규칙 하노이 무역관 종합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타이응우옌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면적: 3,521.96km²인구: 1,335,987명도시거주 비율: 39.34%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타이응우옌성은 북부 산악지대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중심지 중 하나이며 북부 산악 지대와 북부 삼각주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교류의 관문임노이바이(Noi Bai) 국제공항: 50km하노이 시내 중심: 75km하이퐁 항구: 200km중국 국경: 200km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도로: 3번, 1B, 37번, 제5번 외곽 순환도로수로: 다푹(Da Phuc) - 하이퐁(Hai Phong), 다푹(Da Phuc) - 헌가이(Hon Gai)철도: 캱(Kep)-동당(Dong Dang) 철도, 류사(Luu Xa) - 캱(Kep)-까이란(Cai Lan) 철도
GRDP 성장률 / 1인당 GDP('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년대비 GDP 성장률: 8.59%성 1인당 GDP: US4,458 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총 수출액: US 298.8억 달러 / 총 수입액: US 182.8억 달러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9.75%), 서비스업(7.39%), 농수산업(4.23%)
산업구조('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업/건설업 58.51%, 서비스업 27.16%, 농수산업: 10.14%
노무여건('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노동연령 인구 비율: 45.8%노동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72%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35.6%
최저임금('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타이응우옌시, 송꽁(Song Cong) 시, 포엔(Pho Yen) 시: VND4,160,000=US177 달러(2급지)푸빈(Phu Binh) 현, 푸르엉(Phu Luong) 현, 동히(Dong Hy) 현, 다이뜨(Dai Tu) 현: VND3,640,000= US154 달러(3급지)타 지역: VND3,250,000= US138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2.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타이응우옌성의 총 외국인투자는 172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03억 달러(한국) 타이응우옌성에의 총 한국투자는 114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87.6억 달러, 성에 투자한 14개의 국가 중 투자 수건 및 금액 기준으로 1위 규모임

투자환경



타이응우옌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타이응우옌성은 노이바이(Noi Bai) 국제공항에서 50km, 하노이 시내 중심에서 75km, 하이퐁 항구에서 200km, 중국 국경에서 200km 떨어진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또한 타이응우옌성은 전국의 많은 지방성과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철도, 부채꼴 모양의 강길 시스템을 갖춘 중요한 교통 교차점이기도 함.

(도로)

- 하노이 시와 박깐(Bac Kan)성, 까오방(Cao Bang)성, 베트남-중국 국경 관문을 연결하는 3번 국도
- 랑선(Lang Son)성에 가는 1B 국도
- 박닌(Bac Ninh) 성, 박장(Bac Giang)성, 뚜옌꽝(Tuyen Quang)성에 가는 37번 국도
- 호치민 로드: 타이응우옌성을 관통하는 구간은 2025년 완공될 예정임
- 제5번 하노이시 외곽 순환도로: 2030년 이전에 완공될 예정임

(수로)

- 까우 강(Cau River) 및 꽁 강(Cong River)는 타이응우옌성을 관통함
- 다푹(Da Phuc) - 하이퐁(Hai Phong) 경로: 길이 161km
- 다푹(Da Phuc) - 헌가이(Hon Gai)[꽝닌(Quang Ninh)성] 경로: 길이 211km

* 다푹(Da Phuc)은 타이응우옌성의 내륙항구임

(철도)

- 캡(Kep)[박장(Bac Giang)성] - 동당(Dong Dang)[랑선(Lang Son)성] 철도
- 류사(Luu Xa)[타이응우옌(Thai Nguyen)성]- 캡(Kep)[박장(Bac Giang)성] - 까이란(Cai Lan)[꽝닌(Quang Ninh)성] 철도

▶ 관광

누이곡(Nui Coc) 호수, 프엉황(Phuong Hoang) 동굴과 같은 많은 자연 경관, 비엣박(Viet Bac) ATK 안전 구역, 퀸마잉(Khuon Manh) 숲 및 벼냐이(Vo Nhai)현에의 구석기 시대의 고고학 유물과 같은 역사 유적지가 있음. 그 밖에도 성 내 베트남 민족 문화 박물관, 리남데(Ly Nam De) 왕 유적지, 두옴(Duom) 사원, 항(Hang) 절, 푸리엔(Phu Lien) 절, 쑤옹롱(Xuong Rong) 사원, 도이깐(Doi Can) 사원 등 여러 지역에 건축 및 예술 유물, 절 및 사원이 있음. 현재 타이응우옌성은 누이곡(Nui Coc) 호수 관광 지역, 프엉황(Phuong Hoang) 동굴 관광 지역, 머가(Mo Ga) 하천, 쑤오이랑(Suoi Lanh) 호수 및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고품질 호텔 시스템에 투자 계획하고 있음.



누이곡(Nui Coc) 호수 관광 지역



프엉황(Phuong Hoang) 동굴 관광 지역



쑤오이랑(Suoi Lanh) 호수



베트남 민족 문화 박물관

▶ 광물자원

타이응우옌성은 텅스텐, 철, 티타늄, 주석, 납, 아연, 금, 수은 등 다양한 유형의 광물을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광산이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성임. 특히, 텅스텐 매장량은 약 1.1억 톤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며 주로 누이파오(Nui Phao) 광산[다이뜨(Dai Tu) 현]에 집중되어 있음. 석탄 매장량은 약 0.9억 톤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며 주로 랑кам(Lang Cam) 광산, 누이홍(Nui Hong) 광산[다이뜨(Dai Tu) 현], 편메(Phan Me) 광산[푸르엉(Phu Luong) 현], 카잉호아(Khanh Hoa)(타이응우옌 시)에 집중되어 있음.

철광석 매장량은 약 0.5억 톤이며, 주로 자이까우(Trai Cau) 광산, 빈엔보(Tien Bo)[동하(Dong Hy) 현]에 집중되어 있음. 티타늄 광석은 1,000만 톤 이상이며, 납과 아연의 양은 약 20만 톤이 넘고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다양한 광물도 있음. 이는 타이응우옌성이 야금, 광업, 제조·가공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자 기회인 것으로 보임.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 법인 소득세 및 토지세: 현행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음 * 아래 법적 근거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투자지역	법인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버나이(Vo Nhai)현, 딘호아(Dinh Hoa) 현, 다이뜨(Dai Tu) 현, 푸르엉(Phu Luong)현, 동하(Dong Hy) 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건설기간동안면제(최대3년간), 이후: 특별투자우대분야: 전체기간면제 • 투자우대분야: 15년간계속면제 • 투자우대미등록분야: 11년간계속면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푸빈(Phu Binh)현, 포옌(Pho Yen)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율 20% • 첫 10년간 세율 17% (2016년 1월 1일 부터유효)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건설기간동안면제(최대3년간), 이후: 특별투자우대분야: 15년간계속면제 • 투자우대분야: 11년간계속면제 • 투자우대미등록분야: 7년간계속면제
타지역: 타이응우옌시, 송꽁(Song Cong)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율 20%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건설기간동안면제(최대3년간), 이후: 특별투자우대분야: 11년간계속면제 • 투자우대분야: 3년간계속면제

- ❖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Đ-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금월의 유망성 투자 정보

kotra NEWS
베트남
비즈니스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22년 12월말까지 타이응우옌성 대상 총 외국인투자는 172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03억 달러 투자금액이 등록되어 있음.

▶ 타이응우옌성 내 10대 FDI 프로젝트

No.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US 달러)
1	삼성 타이응우옌 첨단기술단지 - 2단계	첨단 모바일, 전자 및 통신 장치 연구 및 개발; 전기 전자 및 통신 제품 제조, 조립 및 가공	한국	30억
2	Samsung Electro – Mechanics Vietnam	통신 장비, 첨단 모바일 장치, 전기·전자 제품용 회로 기판, 구성 요소, 예비 부품 제조 및 조립	한국	25.3억
3	삼성 타이응우옌 첨단기술단지	첨단 모바일, 전자 및 통신 장치 연구 및 개발; 전기 전자 및 통신 제품 제조, 조립 및 가공	한국	20억
4	Dongwha MDF	MDF 목재 보드, 산업용 목재 바닥재 생산	한국	5억
5	Trina Solar Wafer (Vietnam)	단결정 실리콘 바 및 웨이퍼 생산	싱가포르	2.75억
6	Trina Solar 에너지 개발 플랜트	태양광전지 패널 생산 및 태양광 모듈 생산	싱가포르	2.03억
7	Hansol Electronics Vietnam	휴대폰과 부품 연구 및 개발, 제조, 조립, 가공	한국	1.5억
8	전기 및 플라스틱 제품 연구, 개발, 판매, 생산	전자부품 및 장비, 데이터 전송 장비 및 통신 장비 제조	홍콩	1.2억
9	Sunny Optech Vietnam 공장	카메라 모듈/광학 제품 제조, 가공 및 조립	홍콩	1.1억
10	Alutec Vina 공장	플라스틱/알루미늄 문 전자 부품 생산	한국	1억

▶ 한국 투자

2022년 12월말까지 한국투자는 114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87.6억 달러가 등록되어 있음. 타이응우옌성에 투자한 14개의 국가 중 투자 수건 및 투자액 기준으로 1위 규모임.



공단 현황

▶ 산업단지 개발 방향

타이응우옌성에는 5개의 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음. 2022년 3월 9일, 총리는 2021~2030년 국토이용 목표 할당, 2050년 비전, 2021~2025년 5개년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제 326/QD-TTg 결정서를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타이응우옌성 산업단지 면적은 2000~2020년 1,420ha에서 2021년 2,395ha, 2025년 3,286ha, 2030년 4,245ha(11개의 공단)로 증가함.

▶ 가동중인 공단

순번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ha)	주요 정보	인프라 개발사
1	송꽁 I (Song Cong I)	1999	196.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율: 97% • 투자 유치 분야: 자동차 조립, 기계, 전자, 식품 및 음료 가공, 제약, 의료기기, 섬유, 신발, 도자기, 유리, 건축자재 생산, 오염이 적은 청정산업 등 	Thai Nguyen Industrial Zone Infrastructure Development JSC http://kcnSongcong.vn
2	디엠투이 (Diem Thuy)	2011	3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율: 구역A(98%), 구역B(9.18%) • 투자 유치 분야: 기계조립, 부품 제조, 전기·전자, 소비재 및 가전제품 생산, 농림산물 가공등과 관련된 기술이전, 첨단 기술, 고부가가치, 파급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 	타이응우옌성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http://bqlkcnthainguyen.gov.vn
3	남포엔 (Nam Pho Yen)	2007	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율: 60% • 투자 유치 분야: 자동차 조립, 기계, 전자; 식품 및 음료 가공; 가죽 및 가금류 도살; 제약, 의료 기기, 수의학 기기 생산; 섬유, 신발, 수공예품, 도자기, 유리; 가스 충전;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자재 생산등 	구역 A&C: Le Trach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vestment Co.,ltd 구역 B: Thainguyen Vinaxuki Motor Co.,Ltd
4	엔빈 (Yen Binh)	2015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율: 92.4% • 토지 임대료: 120~130\$/m² • 투자 유치 분야: 전자, 하이테크, 오염이 적은 청정산업 	Yen Binh Investment & Development Corporation http://www.yenbinhcorp.com
5	송꽁 II (Song Cong II)	2021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율: 98% • 투자 유치 분야: 기계 공학, 자동차 제조 및 조립, 전자 제품 제조, 목재 보드 제조, 의료 기기, 스포츠 장비 생산등 	타이응우옌성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http://bqlkcnthainguyen.gov.vn

금월의 유망성 투자 정보

kotra NEWS
베트남
비즈니스

▶ 가동예정 공단

순번	공단명	면적(ha)	현황
1	송꽁 II(Song Cong II) – 단계2	300	건설계획 승인됨, 인프라 투자 계획안 제출 중
2	푸빈(Phu Binh) 산업-도시-서비스 단지	900	- 건설계획 승인됨, 인프라 사업 투자유치 중임 - 예상 산업단지 면적은 675ha임
3	옌빈(Yen Binh) 집중된 IT 파크	200	건설계획 승인됨
4	옌빈 II(Yen Binh II)	301	건설계획 수립 중임
5	옌빈 III(Yen Binh III)	300	건설계획 수립 중임
6	트엉딘(Thuong Dinh)	130	건설계획 수립 중임
7	떼이포옌(Tay Pho Yen) 산업-도시-서비스 단지	1,128	- 건설계획 수립 중임 - 예상 산업단지 면적은 868ha임

투자 유망분야

2020-2025년 임기의 제20차 타이응우옌성 당대회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음:

- ✓ "2030년까지 타이응우옌성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하노이 수도권의 현대 산업 경제 중심지 중 하나가 되며, 전체 북부 산악지대의 산업 발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할 것. 특히, 타이응우옌성의 제조·가공 산업은 현대적이고 전문적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제품 그룹을 보유할 것이며, 타이응우옌성을 현대 산업 경제 중심지로 건설하려는 요구를 충족할 것임".
- ✓ 타이응우옌성은 2050년 비전과 2021~2030년 기간 계획 실행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자원과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구축하고 있음. 디지털 경제, 4차 산업 혁명의 발전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성은 공유 경제, 순환 경제, 야간 경제 모델을 연구하고 구현하기도 함.
- ✓ 타이응우옌성은 대규모,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기술, 환경 친화적인 생산 프로젝트,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있는 투자자,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지역의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주장함.

□ 투자 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타이응우옌성 투자 상담 및 진흥 센터	Mr. Chu Van Khanh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913 517 252▪ Email: khanhdptn@gmail.com▪ Website: http://thainguyendautu.vn

2023 베트남 비즈니스 팀

법률

죄 짓지 말자	베트남 2022 HS code 개정안 12/01 발효 예정
베트남에서 차명으로 사업하기 (1)	과기부 강제 인증대상 전기·전자 제품 상세 항목
베트남에서 차명으로 사업하기 (2)	베트남 관세율표 개정
베트남에서 차명으로 사업하기 (3)	EPE 기업 수입 원재료의 판매
Legal opinion vs Legal advice	정보,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면세 시행 규칙
인수·합병(M&A)의 명암	부가세율 시행령
알아두면 유용한 유통·무역업 관련 베트남 법	중고 기계 수입 관련 규정 개정
2023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1)	베트남 수입 제품 라벨링
2023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2)	베트남 수출 세 대상과 환급 여부
직원의 출퇴근중 교통사고 시 회사는 보상을 해야 할까?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 결정 제도
베트남 영주권 발급	임가공 계약 이행을 위한 임대 기계, 설비 면세 유무
베트남 노동법상 호봉제의 강제 여부	베트남 A.T.A Carnet 활용
베트남의 노동조합	한-베 EODES 시행 관련 중량, 수량 단위 안내
베트남의 파산제도의 문제점	베트남 신규 발효 예정 FTA 현황
베트남 민사소송 절차	국내 생산 가능 품목 리스트 개정 예정
베트남 부동산 개발의 어려움 및 유의점	베트남 수출입 세법 관련 규정 개정
베트남 진출방안 살펴보기	하이퐁 신규 비관세구역 착공
베트남 형사절차	베트남 폐기물 수입 절차 및 대상 물품 리스트
베트남 법률상 자본금 설정	관세총국 내국수출입 조항 보완, 수정 관련 제안
베트남 프랜차이즈 사업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련 재무부 시행규칙 개정
베트남 노동법상 수습계약 및 유의사항	베트남 임가공 면세 관련 규정
베트남 외국투자기업의 부동산 구매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 부과
베트남에서의 공장 매도 절차	베트남 전자 원산지 증명서 참고 사항
베트남 행정처분 위험성 검토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회사내 규정 - 취업규칙	베트남 관세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 제안
베트남 직원의 해외파견	베트남 물품에 대한 GSP 적용
	아세안 10개국 AEO MRA 서명

통관

항공편 운항 재개와 베트남 여행자 휴대품 반입규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그 특징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관련 규정	중재의 절차
EPE 기업 공급용 건설자재 면세 관련 이슈와 하도급의 면세여부	중재관련 자주하는 질문 1탄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확인서 제도	중재관련 자주하는 질문 2탄
HS2022 개정에 따른 VKFTA 수입 세율 변화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소개
EPE 기업 공급용 수입 건설자재 면세 프로세스 정리	
베트남-EU FTA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제도 정리	
한국산 원단으로 제작된 완제품의 EVFTA 적용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자율 인쇄 원산지 증명서 용지 사용 허용	
베트남 과학기술부 강제 인증 대상 품목	
전자 원산지 정보 시스템 베트남 확대 추진	

중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그 특징
중재의 절차
중재관련 자주하는 질문 1탄
중재관련 자주하는 질문 2탄

[KOTRA 해외시장뉴스 보고서 > 전체에서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3. 11 20 기준 누계	2023. 1. 1 ~ 11.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한국	9,830	84,110.65	432	1,703.19
싱가포르	3,442	73,681.44	358	3,308.34
일본	5,243	71,528.00	281	757.81
대만	3,087	39,018.72	190	2,051.21
홍콩	2,420	33,712.63	276	3,149.26
중국	4,161	27,063.57	632	3,062.54
버진아일랜드(영)	909	22,716.46	24	47.44
네덜란드	433	14,202.18	20	275.93
태국	733	14,034.58	54	470.34
말레이시아	731	13,096.92	34	3.83
미국	1,320	11,827.04	108	98.48
기타	6,535	57,406.48	456	1,481.96
전체 합계	38,844	462,398.67	2,865	16,410.33
				28,849.91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2023. 11 20 기준 누계		2023. 1. 1 ~ 11 20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6,753	280,539.54	942	14,256.07	20,973.11
2	부동산 경영	1,127	67,572.78	61	858.44	2,874.28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2	38,570.78	11	100.33	131.2
4	호텔, 외식서비스	982	12,847.38	58	30.36	81.29
5	건설	1,817	11,005.92	36	72.86	276.07
6	도소매, 유지보수	6,921	10,967.38	844	404.43	1,035.78
7	물류운수	1,087	6,123.81	110	216.8	385.24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466	5,441.97	367	170.11	848.4
9	정보통신	2,917	5,106.56	269	38.94	372.84
10	채광	107	4,892.57	0	0	1.03
11	교육, 양성	684	4,599.75	65	12.72	29.63
12	농, 임, 수산	537	3,881.29	19	48.34	62.05
13	예술 오락	144	3,165.99	5	7.39	13.01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6	3,158.22	3	115.75	116.18
15	의료와 사회복지	156	1,758.43	3	6.6	11.36
16	행정, 지원 서비스	614	1,060.60	55	20.25	50.94
17	금융, 은행, 보험	94	927.23	9	7.07	1,542.52
18	기타 서비스	153	767.38	8	43.87	44.99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 계	38,844	462,398.65	2,865	16,410.34	28,849.91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2020	2021	2022	2023.11(누계)
수 출	2,826.5	3,363.1	3,713	3,226.1(-5.8)
수 입	2,627	3,322.3	3,589	2,967.5(-12.2)
무역수지	199.5	40.8	124	258.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11(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183	57,537	57,994	48,487(-11.7)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44,576	50,828	55,536	51,640(+1.8)
기계/플랜트 및 부품	27,193	38,344	45,751	39,276(-6.5)
섬유/직물제품	29,809	32,753	37,566	30,426(-12.3)
신발류	16,791	17,751	23,895	18,374(-16.6)
원목 및 목제품	12,371	14,809	16,011	12,123(-17.5)
철강제품	5,258	11,795	7,993	3,652(-14.8)
수송수단 및 부품	9,090	10,616	11,988	12,619(+16.1)
수산물	8,412	8,886	10,923	8,230(-19.1)
원사(Yarn)	3,736	5,612	4,713	3,994(-9.0)
기 타	74,235	87,379	98,934	103,787
합 계	282,654	336,310	371,304	332,608(-5.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11(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63,971	75,440	81,884	79,789(+4.9)
기계/플랜트 및 부품	37,251	46,296	45,192	37,677(-9.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645	21,434	21,126	8,014(-59.3)
의류(원단)	11,875	14,324	14,706	11,874(-13.2)
플라스틱 원료	8,397	11,685	12,387	8,953(-23.3)
각종 철강	8,066	11,523	11,920	9,549(-14.0)
기타 비금속	6,052	8,611	9,253	6,935(-29.2)
플라스틱 제품	7,274	7,959	8,119	6,861(-8.7)
화학제품	5,741	7,627	9,144	6,933(-14.3)
화학물질	5,016	7,735	8,747	7,034(-17.6)
기 타	92,412	119,600	136,423	113,131
합 계	262,700	332,234	358,901	296,750(-10.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11누계
1	미국	61,347	77,077	96,293	109,388	87,878
2	중국	41,414	48,905	56,009	57,702	55,467
3	한국	19,720	19,107	21,945	24,293	21,497
4	일본	20,413	19,284	20,128	24,232	21,312
5	홍콩	7,156	10,437	11,996	10,936	8,513
6	네덜란드	6,881	6,999	7,686	10,430	9,278
7	독일	6,555	6,644	7,286	8,968	6,829
8	인도	6,674	5,235	6,259	7,961	7,796
9	태국	5,272	4,917	6,161	7,476	6,613
10	영국	5,758	4,955	5,765	6,065	5,801
	기타	82,999	79,094	96,782	103,853	101,624
	합계	264,189	282,654	336,310	371,304	332,608(-5.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11(누계)
1	중국	75,452	84,187	109,874	117,866	100,300
2	한국	46,935	46,895	56,155	62,088	47,702
3	대만	15,173	16,701	20,772	22,631	16,934
4	일본	19,526	20,341	22,648	23,373	19,755
5	미국	14,365	13,713	15,270	14,470	12,562
6	태국	11,656	10,968	12,564	14,092	10,780
7	오스트레일리아	4,456	4,677	7,946	10,144	7,796
8	말레이시아	7,291	6,575	8,148	9,124	7,123
9	인도네시아	5,703	5,382	7,587	9,641	7,946
10	인도	4,538	4,435	6,950	7,086	5,413
	기타	47,975	48,826	64,320	68,386	30,558
	합계	253,070	262,700	332,234	358,901	266,869(-10.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11(누계)
수 출	48,178(-0.9)	48,510(0.7)	56,729(16.9)	60,972(7.5)	48,864(-13.1)
수 입	21,071(7.3)	20,579(-2.3)	23,965(16.5)	26,726(11.5)	23,832(-4.1)
무역수지	27,107	27,931	32,763	34,246	25,032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	2023.11(누계)
반도체	10,730(-1.9)	11,501(7.2)	14,026(22)	16,240(15.8)	11,262(-23.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970(-10.5)	9,552(19.9)	12,050(26.1)	12,527(4.0)	11,457(-2.4)
석유제품	2,196(11.2)	1,196(-45.5)	1,157(-3.2)	3,733(222.3)	3,237(-1.9)
무선통신기기	2,932(11.4)	3,460(18)	3,315(-4.2)	2,358(-29.2)	1,985(-8.2)
합성수지	1,624(-2.1)	1,615(-0.6)	2,415(49.5)	2,581(6.9)	1,821(-25.5)
기구 부품	2,230(-4.4)	2,241(0.5)	2,405(7.3)	2,194(-8.8)	1,715(-15.9)
플라스틱 제품	1,210(0.4)	1,115(-7.8)	1,174(5.3)	1,067(-9.2)	934(-5.6)
철강판	1,157(10.4)	1,052(-9.1)	1,267(20.4)	1,069(-15.6)	813(-20.5)
기타기계류	842(-3.9)	686(-18.6)	717(4.5)	815(13.6)	746(+1.2)
계측제어분석기	783(12.4)	669(-14.5)	957(43.0)	793(-17.1)	687(-9.7)
기타	16,678	15,437	17,039	17,242	14,207
합 계	48,178(-0.9)	48,511(0.7)	56,729(16.9)	60,972(7.5)	48,864(-13.1)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	2023.11(누계)
무선통신기기	5,691(17.6)	4,980(-12.5)	5,579(12)	5,986(7.3)	4,169(-27.2)
의류	3,646(2.1)	3,145(-13.7)	3,393(7.9)	3,840(13.2)	3,332(-7.9)
컴퓨터	679(25.9)	1,270(87.1)	1,659(30.6)	1,948(19.1)	1,883(+4.5)
반도체	471(19.1)	561(18.9)	750(33.8)	787(5.0)	1,857(+161.6)
산업용 전기기기	479(14.8)	574(20)	725(26.2)	970(33.8)	1,275(+45.4)
신변잡화	1,053(7.4)	1,029(-2.2)	984(-4.4)	1,250(27.2)	1,128(-0.5)
목재류	657(-17.1)	632(-3.9)	755(19.5)	942(24.8)	668(-21.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197(5.2)	1,027(-14.2)	876(-14.7)	783(-10.5)	617(-16.8)
기구부품	512(15.1)	481(-5.9)	624(29.6)	654(4.8)	522(-14.5)
영상기기	350(6.3)	391(11.8)	426(8.9)	441(3.6)	378(-7.0)
기 타	6,331	6,474	8,161	9,103	8,003
합 계	21,072(7.3)	20,579(-2.3)	23,966(16.5)	26,726(11.5)	23,832(-4.1)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2~2023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2년(연간)	%	3.6	7.6	8.7	5.3	8
	2023년 2Q	%	0.5	4.3	2.9	5.2	4.1
	2023년 3Q	%	0.7	4.5*	3.3	4.9	5.3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124.9	N/A	126.2	N/A
		2023년 9월	-	123.9	5.7	130.5	154.0
		2023년 10월	-	132.7	9.1	133.0	N/A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2년(연간)	-	N/A	52.6	N/A	N/A
		2023년 9월	-	50.1	50.6	46.8	52.3
		2023년 10월	-	50.2	52.4	47.9	51.5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2년(연간)	-	108.4	N/A	100.5	119.9
		2023년 9월	-	114.9	N/A	N/A	121.7
		2023년 10월	-	115.1	N/A	N/A	124.3
	소매판매	2022년(연간)	-	100.3	4.50%	161.5	6.20%
		2023년 9월	-	99.0	3.6%	174.5	1.5%
		2023년 10월	-	102.3	3.4%	173.3	2.4%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N/A	5.8	3.3	4.2
		2023년 9월	%	114.3	5.3	1.9	2.3
		2023년 10월	%	115.1	6.1	1.8	2.6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2년(연간)	%	22.5	N/A	9.2	3.87
		2023년 9월	%	N/A	N/A	8.8	5.77
		2023년 10월	%	N/A	N/A	N/A	14.7(누계)
고용	실업률	2022년(연간)	%	2.1	5.4	3.8	N/A
		2023년 9월	%	1.9	4.4	3.5	N/A
		2023년 10월	%	2.0	4.6	3.4	5.3
무역	수출증가율	2022년(연간)	%	15.6	14.5	25	26.1
		2023년 9월	%	△12.7	△6.3	△13.7	△16.2
		2023년 10월	%	2.8	△17.5	△4.4	△10.4
	수입증가율	2022년(연간)	%	20.1	17.3	31.3	21
		2023년 9월	%	△11.8	△14.7	△11.1	△12.5
		2023년 10월	%	△2.3	△4.4	△0.2	△2.4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구조조정컨설팅 및 국내복귀기업(유턴) 지원 제도 안내(상시 지원)

내용	<p>코트라는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 및 지분양도, 축소, 청산 등 구조조정컨설팅과 국내복귀 관련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 자세한 사업내용은 안내(클릭)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p>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y.cho@kotra.or.kr (KOTRA 국내복귀지원팀)• jjy92@kotra.or.kr (KOTRA 호치민무역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사업 주관기관 변경 안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서는 해외진출(예정)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을 위해 해외 지재권 출원지원, 해외 지재권 보호 법률지원 및 지재권 상담 ·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4년도부터 사업주관기관이 KOTRA에서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 재산보호원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서비스 체계 및 시스템 등의 개편작업을 거쳐 2024년도 1분기 중에 상세한 사업내용 및 신청 관련 안내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IP-DESK 업무추진 TF (02-6196-2070/2066, ipcenter_headoffice@Koipa.re.kr)



kotra NEWS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PARTNERSHIP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